

자비와 채찍 보인 곳을 알고자 한다면 화두에 들라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해인총림 방장

세존께 어떤 외도가 들었습니다.
 “유언(有言)으로도 묻지 않고 무언(無言)으로도 묻지 않겠습니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바를 한 마디로 말씀해 주
 십시오.”
 그러자 세존께서 ‘양구(良久)’ 하였습니다.
 이에 외도가 찬탄하여 말했습니다.

“세존의 큰 자비로 모든 미망의 구름을 걷어주시어 깨달음에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러갔습니다. 외도가 떠나간 뒤에 아난이 물었습
 니다.
 “외도는 무엇을 증득했기에 깨달음에 들게 했다고 하였습니
 까?”
 이에 세존께서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 것과 같은 것이
 니라.”
 세존께서 자비를 내리시고 채찍을 보인 곳을 알고자 한
 다면 오로지 화두를 간절하게 드는 일뿐입니다.
 결제대중들은 세존이 ‘양구’ 한 곳에서 알아차리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채찍을 든 곳에서 알아차리려고 해서도 안 될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존이 ‘양구’ 할 때가 세존이 채찍을 든
 곳이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화두를 타파하여 이러한 도리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
 만 있다면 천하의 모든 종사들이 외도와 도반이 되겠지만 만일
 서로가 인증(印證)할 수 없다면 동토의 남자라고 할지라도 서천
 의 외도보다도 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종략)
 우사제도수미 藕絲剎須彌하고
 개자근번뇌전 芥子巖巖雷이로다
 연뿌리 속의 실로써 수미산을 끌어 넘어뜨리고 겨자씨가 우
 레와 번개를 흔들어 일으킨다.

施恩 헛되이 소비말고 참학하라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삼략) 생각
 으로서 생각
 없는 곳에 옛
 부처 나기 전
 진소식을 급일 덕숭산 정진대중
 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할(嗚)을 거듭 두번 하시고 이
 르시길.
 白雲折盡 青山秀 백운절진 청
 산수 靑山路轉 白雲迎 청산노전
 백운영 石女掉轉 泥牛鼻 석녀에
 전 니우비 夜半金烏 海底耕 야
 반금오 해저경
 흰구름 사라져 다한 곳에 푸른
 산 우뚝하여라 그 청산 굽은 길
 에 흰 구름 맞으니 석녀는 소고
 뼈 끌러 하는데 금은 야반에
 바다 밑 바닥을 갈다.

무시결래(無始劫來)로 이어져
 은 덕숭산의 가풍을 좇아 결제에
 임하는 덕숭총림의 남자들이여!
 대중들의 정진은 무엇을 위한
 인가?
 대중들이 정진을 잡하여 자기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밝히는 일
 은 자기 생사(生死)를 영단(永斷)
 하는 길이요, 부처님의 크신 은
 혜를 갖는 길이며, 일체 중생을
 건지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위하는 길
 이며 은 인류의 참된 평화를 위
 하는 길인 것이다.
 대중들이여! 부디 시은(施恩)
 을 헛되이 소비하지 말고 급년
 삼동(三冬) 결제에 결단코 참학
 (參學)하는 일을 마쳐도록 하라.



공부(工夫)와 일은 둘이 아니니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우리가 오늘 결제(結制)하는 도장(道場)은
 송광사(松廣寺) 삼일암(三日庵)이다.
 옛날부터 대상(大上)은 삼일암(三日庵)이
 라 하여 공부인(工夫人)이 정진(精進)하는 곳
 으로 알려져 있다. (종략)
 요즘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 한국중은 시
 간이 많고 일본중은 돈이 많다고 또 한국중
 과 한국어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편(便)한 사

람이라 한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소린가.
 한국중은 공부(工夫)도 안하고 일도 안한다
 는 말이다.
 우리 송광사 대중은 최소한 이런 증은 되
 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인(古人)의 말씀에 공부(工夫)와 일은 둘
 이 아니라고 했다. 중국 백장(百丈) 스님은 하
 무를 놀면 하루를 굶는다고 하였고 용성(龍
 城)스님과 학명(鶴鳴)스님은 선농(禪農)을 병
 행(並行)하셨다. 우리 송광사 대중은 시물(施
 物)을 수용(受用)하고 살면서 한가하게 놀다
 가 죽어서 소리는 일 없기 바라는 바이다.



고정된 인식·상대적 관념 타파해야

지중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삼략)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 입수
 록 우리 수행자는 더욱 정진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잡재우는 주
 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공은 유위(有爲), 무위(無爲)를 떠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유위적(有爲的)
 인 세계입니다.
 유위(有爲)란 상대적인 관념(觀念)입니다.
 곧,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생기는 것(心
 生即種種法生)이요, 마음을 없애면 상대가
 사라지고 없습니다(心滅即種種法滅).
 우리 중생은 업(業)에 의해 살아갑니다.

업은 마음의 파장으로 나타난 상대적인
 현상입니다. 즉, 분별(分別)된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선(善)과 복(福)
 을 짓는다 해도 복과 선은 화(禍)와 악(惡)을
 의지해서 동시(同時)에 만들어지는 한계(限
 界)가 있습니다.
 복과 선이 최선의 수단(手段)이기는 하나, 고통
 을 영원히 없애는 궁극의 결과는 되지 못합
 니다. 유위(有爲)의 세계 즉, 상대적인 업을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두선은 이 양변(兩邊)을 없애고 생과 사
 를 동시에 끌어내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세
 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상대적인 고
 정관념(固定觀念)만 녹여 없앤다면 여여부
 동(如如不動)하고 자유자재(自由自在)한 세
 상이 될 것입니다. (하략)



은산철벽 나타날 때까지 매진하라

원명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古空寂寂如如處
 水碧山深是道通이로다
 예와 이제에 공적하여 여여한 곳에 물이
 푸르고 산이 깊으니 이것이 도통이로다.
 道火不能燒却口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불이야 ~ 불이야
 ~ 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입은 뜨겁지 않다

는 말입니다. 수행자가 입으로 수행을 말하고
 깨달음을 말해도 실다운 행이 따라주지 않는
 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가에서 흔히 말합니다. 공부를 함에 은
 산철벽을 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산철
 벽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결코
 깨달음에 이르른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
 成說)입니다. 우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은산철
 벽이 나타날 때까지 매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다시 한 번
 응망심을 내어야겠지요. (하략)



분심 내어 一大事因緣 이루길

해초 스님 태고종종정·태고총림 방장

秋山綠水依舊(추산녹수원외구)
 明月淸淸共一家(명월청청공일가)
 白雲高處飛金烏(백운고처비금오)
 碧波江上騰玉兔(벽파강상승용토)
 가을산 맑은 물은 불래가 의구하고, 밝은
 달이 청청하여 삼라만상 비추네. 흰 구름 높

은 곳에 금가마귀 오르내리고, 푸른 파도 강
 물위에 옥토끼가 춤을 추네.
 대자유의 질서는 이처럼 여연(如然)한데
 세월은 유수하여 인걸(人傑)들은 늙고 있
 습니다.
 하안거(夏安居) 결재를 마친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동안거(冬安居)가 시작되어 그
 동안 해이(解弛)해진 도심(道心)을 추스르고
 다짐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략)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02-2004-8279)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분야: 생활홍보, 행사, 개인다큐(취재진), 단체 사
 활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현(前 KBS/동아TV/강원도, 강원대 영상학 강사)

중앙승가대학교 200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정시모집 "나"군> 신입생 모집요강

본교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중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조계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1)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	학과	일반전형	특별전형 (성원회(재학생인원))	비고
인문	불교학과	21	2	
	역경학과	21		
사회	포교사회학과	21		
	사회복지학과	21		
합계(명)		84	2	86

*수시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1)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 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100%를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고교내신성적	면접(인성)고사	합계
40% (400점)	60% (600점)	100% (1,000점)

- 고교내신성적은 고등학교(검정고시 포함) 성적 중 학년이 지정한 우수과목
4과목만 평가함.

3) 원서교부 및 접수

- ◇ 장 소: 본교 교학처
- ◇ 교부기간: 2007. 12. 10(월) ~ 2007. 12. 24(월)
- ◇ 접수기간: 2007. 12. 20(목) ~ 2007. 12. 24(월 16:00까지)
* 단,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2) 고교졸업(예정) 증명서 1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1부 (2008년 졸업예정자 포함) 1부
- 4) 승적증명서 1부 (타 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 6) 사진(종단 의제규정에 따른 의제를 수한 만명합판 3×4cm) 5매
5매 제출 (2매 원서 / 3매 별도)
- 사미(니)스님은 의제규정 준수 제출 요망
- 7) 총무원장 추천서(조계종 스님 외 타 종단 스님에 한함)

5)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3,000원
- 2) 전형료: 60,000원

6) 전형일정

- ◇ 예비소집: 2008. 1. 16(수) 12:30 ~ 13:00
- ◇ 면접 및 인성검사: 2008. 1. 16(수) 13:00
- * 시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7) 기타

- '08학년도 신입생은 전원 수행관 입방 생활을 하여야 함.
단, 편입생 및 타 종단 지원자는 수행관 입방을 할 수 없음.

편입생 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구분	학년	학점코드	학과	모집인원
인문· 사회계열	3학년 (일반편입)	13	불교학과	00명
		23	역경학과	00명
		33	포교사회학과	00명
	3학년 (학사편입)	43	사회복지학과	00명
		14	전학과	00명
				00명

2) 지원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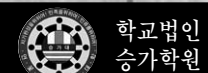
- 일반편입: 2008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남 단 2년 이상 승려로서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2008년 3월에 조계종 승남 단 2년 이상인 자
* 타 종단의 승려도 위와 동등한 자격 및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입 지원 가능

3) 전형방법 및 일정

- 신학적 전형일정과 같으며 서류(전적대학 성적) 및 면접전형으로 선발

4) 기타

-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중 2008학년도 사미(니) 편입생은 졸업 후 구족계를 받을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입시담당자)로 문의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
(www.sangha.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 ☎ (031)980-7713~86